

칼럼



장기채 주필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치매는 '천형(天刑)'과도 같은 무서운 질병이다. 치매환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환자를 돌보는 가족까지도 육체적·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드는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이다. 만약 환자를 제대로 돌볼만한 경제적 여유조차 없다면 더욱 심각해진다.

환자를 간병하던 자식이나 배우자가 환자와 동반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지질대로 지친 몸과 마음에서 오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때문일 것이다.

환자 가족이 겪는 고통이 덜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환자 급증과 함께 유사사건이 속출할 가능성이 불

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치매 환자 관리를 가족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프랑스나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처럼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하지만, '치매환자에게 가장 좋은 의사는 가족'이라는 말도 있다.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게 하지말자. 가벼운 운동 반복해서 시키고 야외활동 도와주자. 환자와 인쟁 피하고 사진첩 보여주며 추억 얘기 들려주자" 이 말은 노인전문병원 의사들이 전하는 한결같은 치매 간병 가이드다.

치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서 일상 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병이다. 이 치매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발생률이 올라가는데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정도가 치매라고 한다. 그 10%의 인구는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다.

약 57만 명 정도가 현재 치매에 걸려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또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형편이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정에서 관리가 힘들어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일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9년 21만 6656명 치매 환자가

지난해 40만 5475명으로 87.2%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다.

집이나 요양원에 있는 경우를 더한 실제 환자는 훨씬 많다고 한다. 여자 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올라간다. 여자 노인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해서다.

고령화에 따른 국가 재원은 압도다 더 무섭다는 치매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자살사망률과 자살증가율이 세계 1위다.

행복지수는 26위란다.

현재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 스트레스가 자살로 또는 치매로 미래에 대한 것이 출산률로 드러난다.

이대로라면 현재는 물론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노인치매 대책을 긍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난 4년간 70세 이상 환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지만 40대 미만과 40-50대도 6.5~43% 늘어 모든 연령층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치매는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생긴다.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시간과 장소에 혼돈이 생기는 증상이 있으면 치매를 의심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예방 3·3·3 수칙'을 내놨다. 3권(働·즐길 것), 3금(禁·참을 것), 3행(行·행길 것)으로 돼 있다. 3권은 일주일에 세번 이상 걷기, 책·신문 읽고 글쓰기, 생선·채소 골고루 먹기를 말한다. 3금은 술·담배 안하기, 머리 다치지 않기, 3행은 만성병 정기검

진, 가족·친구와 연락하기, 치매 조기검진을 실천하자는 뜻이다.

서울백병원 내과 권인순(노인 의학)교수는 "뇌를 써서 '뇌 스트레스'를 올리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능이 없어진다."며 "많이 걷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게 중요하다"고 권한다.

어쨌든 치매환자는 기억은 잃어 지지만 좋은 감정, 싫은 감정은 오래도록 남아있다고 한다.

이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표현이나 행동에 의해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해 전문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치매가족이 치매환자에 대한 궁금점과 고민거리가 있을 때 언제든지 물어보고 즉시 답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치매는 치매환자의 가족(간병인)이나 전문 의료진, 사회복지 관련자, 공무원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에 매달린 인테리어 부착인형 사고유발 우려

요즘 도로를 운행하다보면 신기하면서도 재미있는 광경을 종종 보곤 한다. 바로 차량 후면 유리나 스포일러 등지에 매달아 놓은 작고 앙징스러운 인형을 말한다.

최근 젊은층에서 유행하고 있는 차량 외부 부착 인형 액세서리는 종류도 천차만별이고 크기도 손가락 크기에서부터 손바닥 이상은 되어 보이는 대형 인형도 있었다.

필자가 본 인형만하더라도 스파

이더맨, 토이스토리, 어벤저스 등 히어로 영화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소재로한 캐릭터 인형이었다.

자동차 부착인형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수 있는데 가격 또한 고가의 제품이 아닌지라 양면테이프 부착하게 되어 있는 자동차 액세서리 인형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짐작 문제는 운전자 개인 취미 또는 선호에 따라 차량 외부에 부착된 인형이 운행중 접착력을 잃고 떨어지거나도 한다던

뒤따르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협할수도 있고 신기한 앞차의 인형을 쳐다보느라 시선이 분산되어 자칫 사고를 유발할수도 있다는 점이다.

도로에 순간 떨어진 인형으로 인해 운전자 상호가 실랑이도 벌어질 소지가 충분하다.

물론 인형의 양면 테이프가 어느정도 접착력을 가지고 있어 쉽게 떨어지지 않겠지만 접착면에 물이 들어가거나 부착한지 오래되어 접착력이 예전만큼은 아닐 때

만약 고속도로상에서 인형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뒤차는 참으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할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작은 인형이 안전운행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불법 부착물은 될수 없겠지만 만약에 운행중 떨어진 인형으로 사고가 날 경우 민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물론 도로교통법 제10조에 해당할수도 있는 문제의 소지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덕형/행정경찰서정보보안과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인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